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내 양돈장의 인력문제 해소 방안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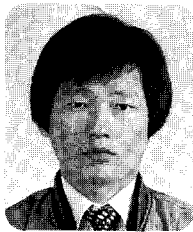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과 축산업의 총생산액 비중에 있어서도 양돈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육농가수에 있어서 부업규모 농가수는 급속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00두 이상의 전업규모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의 17%인 3천호에 지나지 않으나, 사육두수는 71%인 6,384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즉, 수입자유화와 구제역의 발생 등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농장은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력이 가능한 전업규모 농장에서는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자 규모경제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를 통한 규모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농장이 번식+비육 일관경영체제로 돼지를 사육하는 관계로 고용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용인력의 부족 심화로 경영관리 부실화를 초래하여 양돈장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규모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작업단계별 인력부족의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사육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송 금 찬
농촌진흥청



부부중심 가족노동력으로 양돈장을 경영할 때 주부의 가사노동력을 50%로 가정하면 연간 가족노동 활용시간은 3,600시간(1.5명×8시간/1일×300일)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두당 소요되는 작업시간 23.8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도 번식+비육 일관경영시 모든 기준으로 151두(비육돈 상시두수 2,9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돈장에서 자가노동력이 활용되고 있는 시간은 24.1%인 5.74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양돈산업에서 자가노동력의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경영주의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 양돈장의 고용인력 비중

국내 양돈장의 고용인력의 평균비중을 <표 1>에서 보면, 번식돈은 76.5%, 비육돈은 56.8%로 나타났고, 경영규모 별로는 번식돈의 경우 150두 미만이 8.1%, 150~299두가 30.3%, 300두 이상이 83.1%, 비육돈은 500두 미만이 3.1%,

500~999두가 43.2%, 1,000두 이상이 7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규모가 확대될수록 고용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육성비육 단계 보다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번식돈 관리부문에서 규모가 확대될수록 고용인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돈장이 규모화 되면서 고용인력의 비중은 높아짐으로써 경영주의 경영관리 능력에 따라 양돈장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양돈장은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는 반복적인 일과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고용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뇨처리 등 작업환경의 열악한 조건, 임금조건, 작업장 역할분담의 정립 미흡 등의 문제로 고용인력의 안정적 취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양돈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3. 양돈장의 부족인력 안정화 방안

<표 1> 경영규모별 노동력 구성비

(단위 : 시간/두)

구분	노동력 투하량			B/A(%)	
	자가노동(A)	고용노동(B)	계		
번식돈	150두 미만	30.67	2.72	33.39	8.1
	150~299두	15.97	6.95	22.92	30.3
	300두 이상	3.71	18.24	21.95	83.1
	평균	5.17	17.26	22.43	76.5
비육돈	500두 미만	1.57	0.05	1.62	3.1
	500~999두	0.67	0.51	1.18	43.2
	1,000두 이상	0.26	0.97	1.23	78.9
	평균	0.57	0.75	1.32	56.8

가. 자가노동력의 활용 최대화

비농업분야 근로자의 노동일수 300일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작업시간은 1인당 2,400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즉, 부부중심 가족노동력으로 양돈장을 경영할 때 주부의 가사노동력을 50%로 가정하면 연간 가족노동 활용시간은 3,600시간(1.5명×8시간/1일×300일)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두당 소요되는 작업시간 23.8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도 번식+비육 일관경영시 모든 기준으로 151두(비육돈 상시두수 2,9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돈장에서 자가노동력이 활용되고

있는 시간은 24.1%인 5.74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양돈 산업에서 자가노동력의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경영주의 마인드가 체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작업단계별 역할분담의 체계화

규모확대 과정에 수반되는 인력은 모돈 및 자돈 관리두수와 육성비육돈 관리, 분뇨처리 등 1인당 1일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작업단계별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전문성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즉 번식돈과 자돈 관리는 경영주와 고급인력을 투입하고 육성비육돈의 관리, 분뇨처리 등에는 단순인력을 투입하여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고급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도록 하여

정작 중요한 모돈 및 자돈 관리부문을 소홀히 하여 본래의 고급인력 활용 취지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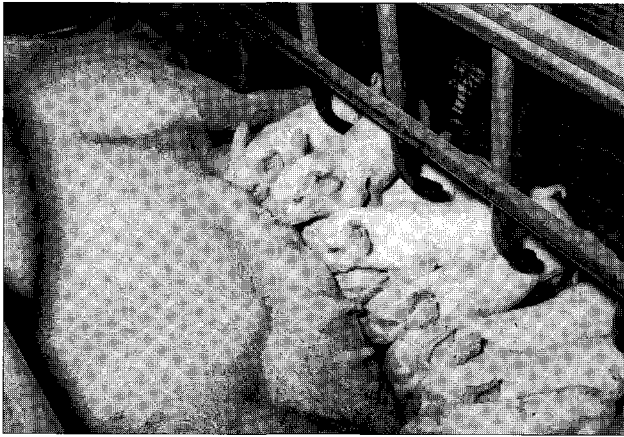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 제한적으로나마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단기간의 취업비자로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번식돈 관리에 활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영주는 양돈장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돈 관리에 집중하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부문에는 단순노동자가 전담하는 역할분담 체계로 작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양돈장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양돈장의 경영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으나, 모돈 관리부문 만큼은 항상 경영주가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경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 고용인력의 직업의식 제고를 위한 성과급제 도입

양돈장이 규모화되면서 모돈 관리를 경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농장과 고용인 위주로





양돈장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양돈장의 경영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으나, 모든 관리부문 만큼은 항상 경영주가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경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

운영하는 농장간에 생산성 격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 같은 생산성 저하는 경영주와 고용인력간 갈등을 초래하고 타농장으로 이탈하는 과정이 되풀이됨으로써 농장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농장일수록 이같은 문제는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 양돈장의 대부분이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저임금 단순노무자일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정액의 고정임금에 농장의 기준성적을 설

정하여 모돈의 성적, 사료요구율 개선, 폐사율 감소 등의 효과에 따른 이익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장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겠지만, 꾸준한 노력이 수반될 경우에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계되어 고용인의 직업에 대한 애착으로 보유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는말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에 의한 사육규모의 확대가 필연적이거나, 이에 따른 경영주의 기술수준

은 물론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규모확대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이 지속될수록 1차산업의 종사자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부족 문제는 현재보다도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양돈장의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관리능력에 맞는 농장운영과 고용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고용인력에 대한 성급제의 도입 등에 대한 경영주의 경영마인드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양돈**